

정읍시 캠핑하고 10만원 환급 받고

국민여가캠핑장 우선예약 환급제 무감면 이용객에 지역사랑상품권 8월 조례 개정 후 110건 우선예약

정읍시가 감면 혜택 없이 국민여가캠핑장을 이용한 캠핑객에게 ‘우선예약 환급제도’를 통해 1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정읍 국민여가캠핑장은 그간 매월 25일 정기에 약일만 되면 글램핑·카리반 등 인기 시설을 선점하려는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가 마비되는 등 고질적인 문제를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캠핑장 방문객이 지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할 방안을 고심한 끝에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우선예약 환급제도’는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이용객이 우선예약 시, 입실할 때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돌려주는 제도다.

제도 도입을 위해 시는 지난 8월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 달간 새로운 예약 시스템의 안정화 점검을 거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마쳤다.

시행 후 현재까지 110건의 우선예약이 접수돼 총 1100만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이 예정돼 있다.



정읍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특히 예약자 중 관외 관광객의 비중이 높아 환급된 상품권이 지역 내 식당, 전통시장, 상가 등에서 사용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우선예약 제도 시행으로 예약 시기가 분산되면서 고질적인 서버 마비 문제가 해결되는 등 이용객 편의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이 제도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행정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목박으며 이용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우선예약 환급제도는 예약 편의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통해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생활인구 ‘누리시민’ 15만명 돌파

7월 말 7만4000명서 두배 늘어...등록자 할인 혜택 등 ‘효과’

남원시 생활인구 등록자인 ‘누리시민’이 최근 15만명을 돌파했다.

2023년 9월 누리시민제도를 도입하고 생활인구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지 2년여만이다. 이는 지난 7월 말 현재 남원시 인구 7만4000여명의 배가 넘는 규모다.

남원시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면 내년에 누리시민이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한다.

생활인구는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과 함께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평가받으면서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다.

남원시가 생활인구 유치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은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덕분이다.

남원시는 생활인구 등록자에게 관광지 무료 또는 할인, 가맹점 이용 시 할인 등의 각종 혜택을 주고 다양한 이벤트 참여 자격도 주고 있다.

성인이 1박 2일간 머물면 1인당 최대 19만원가량의 금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생활인구 등록자가 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혜택을 확대해 가입자를 늘리는 동시에 이들의 재방문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산단 ‘유해물질 유출’ 집중 점검

화학물질 사용 여부 등 전수조사...적발 업체 엄중 조치

정읍시가 최근 지역 제3산업단지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9월 한달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정읍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산단 내 화학물질 관리 실태 전반을 살피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신고된 A사업장에서는 염산이 하천에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또 올해 8월에는 미신고 시설인 B사업장에서 화재로 황산이 유출됐으며, 같은 시기 C사업장에서도 소량의 황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연이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해화학물질 인허가·지도점검을 담당하는 전북지방환경청 및 산단 내 배출업체소관리를 맡은 전북자치도청과 긴밀히 협력했다.

합동점검단은 ▲화학물질 사용 여부·취급시설의 인허가 내역 등 전수조사 ▲시설 내 저장·취급 안전관리 상태 ▲방치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최근 반복적으로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라며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강화로 시민의 안전과 지역 환경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주말엔 남원 ‘월광포차’서 힐링~

지역예술인 공연+먹거리존...25일까지 매주 광한루원 경외상가 일원

남원시가 오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광한루원 경외상가 일원에서 하반기 ‘월광포차’를 운영한다.

월광포차는 ‘지역예술인 공연’ ‘시민참여형 프로그램(행운의 95 노래방)’ ‘감성 먹거리존’이 결합된 체류형 야간관광 콘텐츠로 꾸며진다.

올해 상반기 월광포차는 춘향제 기간인 4월30일~5월6일과 이후 5~6월 주말 운영을 통해 23만4000여명이 방문했다.

춘향제 기간에는 17만명이 찾았다. 지역예술인 67팀이 음악, 국악, 무용 등 다양한 공연으로 참여했다. 또 기간 중 주말에는 임창정, 정동하, 박기영, 현진영&이재영, 최재훈 등 인기 가수들이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방문객의 호응 속에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방문객의 95%가 재방문의사를 밝혔다. 53%가 전북 외 지역 방문객으로 파악됐다. 이번 하반기 월광포차는 ‘달빛 아래 감성 포차거리’를 주제로 음악과 먹거리, 방문객 참여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행사는 남원 지역예술인과 문화예술 동호회, 초청가수가 함께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인 ‘행운의 95 노래방’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오픈 무대 형식으로 진행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세계유산 고창 갯벌서 철새·섬 탐험

고창군 가족 참여형 생태 프로그램...10개팀 34명 참여 성료



지난 11일과 12일 세계유산 고창갯벌에서 열린 ‘고창갯벌 탐조캠프-갯벌 섬 탐험’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세계유산 고창갯벌에서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고창갯벌 탐조캠프-갯벌 섬 탐험’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탐조캠프는 고창군이 주관해 탐조활동과 생태교육을 결합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이며 국가유산청 ‘2025년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됐다.

참가 접수 3분 만에 174팀, 625명이 신청하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조기 마감된 이번 캠프는 최종 선발된 10팀, 34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창갯벌

과 탐조에 관한 이론 교육을 받은 뒤, 전문가와 함께 고창갯벌 일대에서 탐조 활동을 진행했다.

이어 ‘고창갯벌 철새 기록 만들기’와 ‘민화로 그리는 고창갯벌의 새’ 등 다양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등 첫날 일정을 소화했다.

둘째 날에는 트랙터를 타고 갯벌 섬 ‘죽도’로 이동해 암반갯벌 생물을 관찰했으며, ‘사운드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갯벌의 소리와 풍경을 함께 느끼며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어린이 소리꾼’ 고창으로 모여라

전국 어린이판소리 왕중왕대회 다음달 7일까지 참가자 모집

고창군이 올해의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을 가리는 ‘제38회 전국 어린이판소리 왕중왕대회’ 참가자를 오는 11월7일까지 모집한다.

이 대회는 자세대 어린이 판소리 명창을 발굴 육성하고 판소리 여섯바탕 사설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의 문화예술사적 업적을 기념하며 유업을 계승하기 위해 고창군과 KBS전주방송총국이 공동주최하고 새동리문화사업회가 주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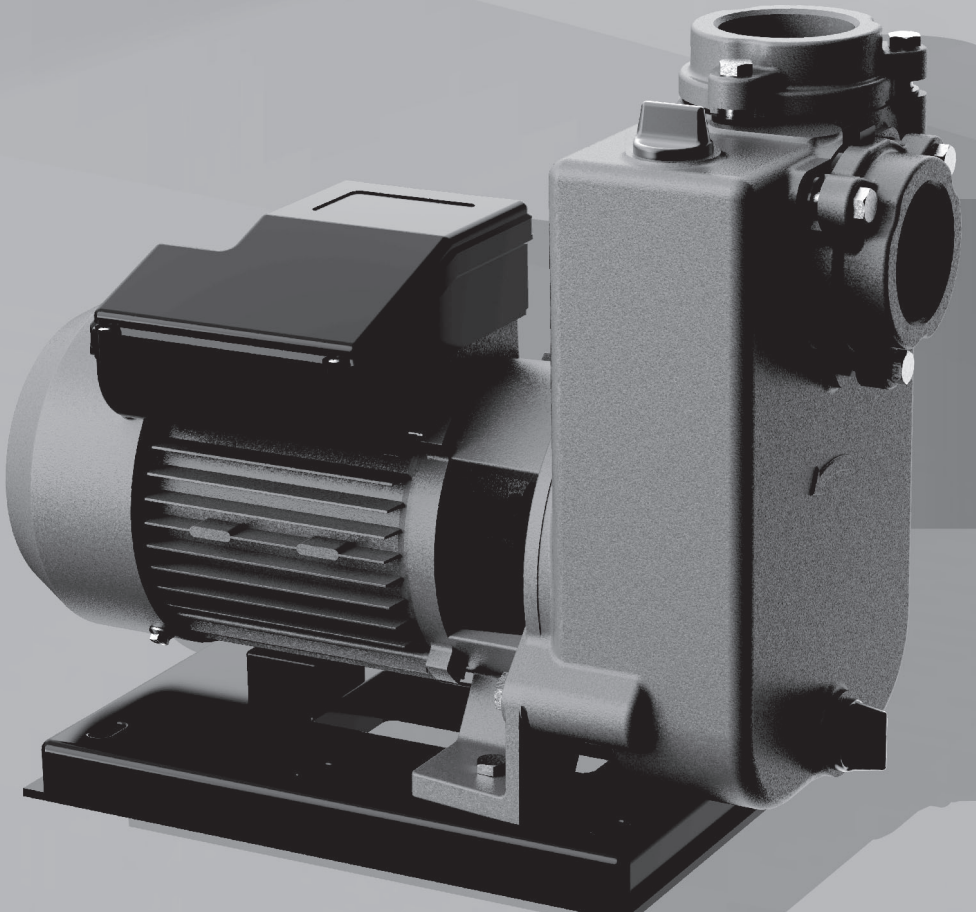
11월8일 동리국악당에서 예선을 치르고 9일 측

하공연과 함께 본선에 오른 7명의 어린이가 본선 경합을 펼친다.

왕중왕전은 KBS전주방송총국이 전국에 방영해 어린 꿈나무들의 판소리 기량을 널리 알린다.

대회 참가자는 2024~2025년 국악대회에서 입상한 전국의 어린이로 고창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새동리문화사업회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